

숲길 따라 물길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느낌여행

활동장소	국립공원 및 평촌명품마을 일원
소요시간	6시간 (점심시간 제외)
참가대상	가족
참가인원	20명 이상

- 활동목표**
- 자연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을 안다.
 - 무등산 숲 물길 따라 걸으며 우리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통한 지혜를 알 수 있다.
 - 오감을 깨운 자연체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

- 준비물**
- 비상약품, 체험관찰도구, 만들기 재료

- 유의사항**
- 자연 관찰 활동시 자연생물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

단계	내용	시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일정 안내 -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 안내 	10분
전개	<p>원호계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과 의병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국립공원 설명 - 무등산과 의병이야기(제철유적지) • 원호계곡 숲 느끼며 물길 따라 걷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식물 깃대종 “털조장나무” - (명상) 숲이 주는 보물 ‘오감으로 숲 느끼기’ - (쉽) 하늘이 가린 정자 ‘풍암정’에서 쉽 	5시간 40분
	<p>반디공원 증암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트레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숲과 문화 - 증암천 징검다리 건너며 추억 만들기 - 수달 서식지 관찰 및 흔적 찾기 • (체험) 깃대종 수달 스트링아트 만들기 • 무등산 숲 따라 흐르는 삶과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산 분청사기 도요체험(안내)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감 나누기 및 설문조사 	10분

**세부내용
(시나리오)**

인사 및 프로그램 일정 소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자연환경해설사 000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무등산의 숲길 따라 흐르는 물 따라서 온 몸으로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치유하는 느낌의 여행입니다. 스트레스는 비우고 에너지는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안전하게 몸을 풀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시 미끄럼에 유의해 주시고, 체험 할 때는 자연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등산과 의병 이야기

간략하게 국립공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22곳 중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년에 21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무등산은 호남정맥의 중심에 있는 진산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애환을 달래고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이미지를 주는 산입니다.

이곳 원효광장에서는 무등산정상이 바라다 보이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보이시는 곳은 천왕봉을 비롯한 정상3봉과 우측으로 능선을 따라 뚝! 떨어진 곳이 무등산을 대표하는 경관인 천연기념물인 주상절리대 서석대입니다. 무등산의 특징은 저렇듯 천 미터가 넘는 정상까지 주상절리대가 형성되어 있고 규모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크기의 단일면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승인 광석대의 주상절리대 너비는 세계에서 가장 크며, 과거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된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합니다.

무등산 옛길인 숲길 따라 걸으니 어떠신가요? 옛길에서 살짝 벗어난 이곳은 제철유적지인데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면 쇠뿔 같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곳 제철유적지는 김덕령장군이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창과 검을 만들었던 유적지로 지금도 주변에는 파편 조각들이 철을 녹여 무기를 만들었던 곳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곳 제철유적지 바로 아래가 정상에서 모아져 내려가는 원효계곡인데요. 의병들이 이곳에서 검과 창을 만들어 무기를 식혔던 사당소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려 보세요. 물소리가 들리시지요!

원효계곡 물길 따라 걷기

이곳 원효계곡은 물의 양이 많아서 예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여름 피서철이면 이곳에서 휴양을 즐겼던 곳이지요. 원효계곡은 9km의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흘러 흘러서 광주 호에 몸을 담고 유유히 흘러 영산강을 만나 호남의 별을 적히며 목포앞 바다로 흘러갑니다.

제철유적지부터 원효계곡 물줄기 따라 길 위에는 의병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곳으로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고즈넉하니 자연을 느끼며 송고한 의병들의 정신을 떠오르며 걸을 수 있는 길이지요. 물줄기 따라 무등산 자락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는 풍암정,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 등 많은 정자문화권이 형성되었으며 가사문학을 꽃 피운 곳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우리도 무등산 물줄기 따라서 쉬엄쉬엄 걸으면서 선조들의 옛 문화도 느끼며 자연 속에 몸을 적혀 볼까요!

숲이 주는 보물 오감으로 숲 느끼기

- 무등산 깃대종 “털조장나무”

자! 여기에 서 있는 나무와 눈 맞추고 가도록 할게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나무와 다른 특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식물의 줄기가 짙은 초록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이 생강나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요? 잎을 살짝 만져서 향기를 맡아 보실까요? 어떠신가요.~은은한 향이 참 좋습니다. 이 나무는 무등산을 대표 하는 식물 깃대종인 털조장나무로 세계에서 일본의 일부 지역과 우리나라에서 무등산과 조계산 일부에서만 살고 있는 희귀식물이지요.

털조장나무는 생강나무와 같은 집안으로 기분 좋은 향기를 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정서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털조장나무 꽃은 이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마치 촛불 같아 보이지 않나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잠자고 있던 생명들이 움트는 봄에 이렇게 불을 밝혀 따뜻한 희망을 주는 불빛처럼 느껴져요

-(명상) 오감을 깨우는 숲에 들다.

계곡에 있는 바위들은 숲속에 이끼를 잔뜩 입고 있는 바위와는 다르게 고스란히 온 모습을 드러내고 산림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리도 마음에 드는 바위로 가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돌돌돌! 돌을 돌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소리~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소리! 작은 풀벌레 울음소리~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보겠습니다.

햇빛을 담은 바위에 따뜻한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크게 들숨, 날숨으로 호흡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천천히 떼서 숲을 바라볼까요. 몸도 천천히 깨워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쉽) 하늘이 가린 정자 풍암정

보통 정자들은 밖에서 잘 드러나 보이는데 풍암정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은 정자입니다. 계곡을 건너서 풍암정으로 가까이 가볼까요?

풍암정은 총장 김덕령의 동생 김덕보의 호로 단풍과 바위가 어우러진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붙여진 이름으로 바람과 바위의 정기 흐르는 집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덕보는 임진왜란 때 금산싸움에서 큰형이 죽고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하던 둘째 형 김덕령도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자 이를 슬퍼하여 나무숲에 가려 보이지 않은 이곳에 정자를 짓고 묵객들과 운둔생활을 곳입니다. ‘풍암기’의 기록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암괴석 사이에 1백 그루 정도의 단풍나무가 끼여 있어 시냇물조차 붉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암정은 한적한 곳과 동시에 무등산을 찾는 사람들이 자주 들러 가는 쉼터이자 치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풍암정에 앉아 시원한 계곡물소리와 맑은 공기 마시며 도심에서의 복잡함을 모두 씻어 내볼까요?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평온해 질 겁니다.

자! 잠시 자율적으로 자연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트레킹과 중식(자유시간)

이곳은 무등산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무등산 물줄기 따라서 천연기념물 수달과 남생이가 살고 있는 농촌마을로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 지역이기도 합니다. 마을에서 길하나만 건너면 조선의 대표 정원이라 하는 소쇄원, 식영정 등 정자들이 많이 있으며, 가사문학의 산실로 정철의 ‘성산별곡’ 등 한글로 시를 짓는 가사문학을 꽃 피운 곳이기도 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길을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식사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시간)

마을 뒷 숲(수달공원) 자연·문화해설과 자연놀이

-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구황식물 도토리

이곳은 마을 숲 입구 수달공원인데요, 숲 가장자리에 이 나무들을 자세히 보시겠어요!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자, 나무아래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상수리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도토리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하시나요? 네네! 다람쥐! 도토리묵!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다람쥐를 많이 떠올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도토리묵을 많이 떠올리

시는군요. 도토리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중요한 구황식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끔씩 볼 수 있는 건강음식인 듯해요. 이 도토리는 겨울을 나는 다람쥐와 같은 숲속 동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먹이식량입니다. 다람쥐나 어치는 이 도토리를 정말 좋아해서 도토리가 익어서 떨어지면 겨울에 먹을 도토리를 땅속에 저장을 하지요. 그렇게 동물들이 저장한 도토리가 때로는 싹을 틔우고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숲은 숲속 동물들이 나무를 심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여기 있는 마을 숲은 누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여기 상수리나무는 열매도 크고 이처럼 농촌 주변 숲이나 산의 낮은 곳에서 흔히 볼 수 있지요. 특히 종자를 심어 나무를 가꿀 때 다른 도토리나무보다 훨씬 잘 자라서 마을 숲을 가꿀 때 상수리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도 수확하고, 버섯도 수확하고 에너지원으로 땀감도 얻었던 곳으로 마을 숲은 옛날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주운 도토리를 가지고 자연놀이를 해보도록 해볼까요?

(대상에 맞게 도토리를 이용한 자연놀이 진행)

자! 숲속 동물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놀았던 도토리를 숲속에 던져 주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암천 징검다리 건너며 추억 만들기

-수달 서식지 관찰 및 흔적 찾기

이곳 증암천은 무등산 정상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원효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마을 하천입니다. 마을 자연환경이 깨끗한 이곳은 천연기념물이며 깃대종인 수달이나 남생이가 이 마을까지 이동하는 서식공간이지요! 또한 이곳 마을 평모 뜰은 우렁이 농법인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사라져 볼 수 없는 반딧불이가 살고 있어요. 반딧불이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아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슬기를 먹고 살지요. 이곳 마을 하천에는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수달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볼까요? 또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관찰도 해 보아요.(자유롭게 관찰 활동을 함)

자! 어떤 것들을 발견 했나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네~ 많은 것을 찾았군요! 여기에 물새들의 발자국도 보이죠! 그리고 물을 먹으러 온 고라니 발자국, 여기 샛의 발자국도 보이네요! 아쉽게도 수달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반딧불이의 먹이인 다슬기도 있고, 잠자리유충, 하루살이유충, 물고기 등 이렇듯 많은 물속생물들이 살아가는 물 생태계 또한 중요한 공간으로 육상생태계와 연결되는 생태계의 통로입니다.

이 증암천을 따라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것 또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수달은 물속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연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수달이 사는 곳이라는데 수달을 볼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요~ 수달이나 삶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이지요. 해가 지는 저녁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 시간인 새벽5~6시에 잠 자리에 들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지가 않는 거래요. 아쉽지만 수달서식지인 풍암제에 녹화된 수달의 사진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할 듯합니다.(수달 사진 제공)

- (쉽) 김삿갓이 되어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풍경 느끼기

여러분들~ 이 마을은 김삿갓이 지나가다 당산나무 아래서 쉬었다 간 유래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우리도 이곳 증암천 옆에 있는 당산나무 그늘아래서 편하게 쉬어 볼까요? 들녘에 부는 바람이 시원하지 않나요?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바라보고 평온한 시골 풍경을 잠시 감상 하도록 할게요.

깃대종 수달캐릭터 만들기

-무등산국립공원 깃대종 수달 “달콩이” 스트링아트 액자 만들기 진행
만들기 방법 안내

.보드판 위에 수달 달콩이 도안을 올려 못을 망치로 탕탕 박는다.

.못과 못 사이를 선택한 실로 ||자나 X자로 칭칭 감는다.

.도드라지는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해준다.

(실 감기 할 때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으며, 채우기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감아주면 된다.)



수달 달콩이



스트링 아트 만들기



수달스트링아트 액자

수달이 살고 있는 물속에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이렇게 그물 사슬처럼 이어져 있어요. 이 스트링 줄처럼 순서대로 나타난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지요. 먹이사슬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스트링

만들기의 실이 얽히는 것처럼.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자연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대요.

귀여운 수달가족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등산과 무등산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이 건강해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자연자원이 소중함을 달콤이 스트링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등산 물줄기 따라 흐르는 삶과 문화

- 무등산 분청사기 도요체험(안내)

무등산국립공원 금곡마을 일대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여러 종류의 도요지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 마을 입구인 충요동요지에서 발굴된 가마터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드러나 도자기 가마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사적 제141호로 지정 보존 관리되고 있는 유적입니다. 분청사기는 고려후기에서 조선시대 초 약 200년 동안 잠깐 등장한 양식으로 이곳에서 만든 분청사기는 당시 중앙관청에 납품된 고품질 자기로 확인되었지요. 고려청자는 높은 신분의 벼슬을 갖춘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한 반면 분청사기는 관청을 비롯한 서민들까지 넓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촌도예공방은 이 분청사기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600년 전의 분청사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 나누기

오늘 저와 함께 한 무등산 '숲길 따라 물길 따라 느낌의 여행' 어떠셨는지요? 숲은 강으로 흐르며, 물길 따라서 사람들은 삶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식물들도 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가끔씩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느낌의 발걸음으로 자연과 함께 하다보면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 시키고 지친 몸에 자연이 주는 기운으로 충전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함께 하신 소감을 편하게 나눠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